



(주)TKS가 회사 설립 이래 첫 건조한 3만4000t급 벌크선 '마콜로라도'호가 10일 영광군 흥농읍 TKS조선소에서 독일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TKS 제공)

영광 TKS 조선, 첫 선박 수출

3만4000t급 벌크선... 14일 독 선주사에 인도 광주세관, 본부승격 30년만에 관내선 처음

지난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영광 (주)TKS 조선소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선박을 건조, 수출한다. 광주본부세관 관내에서 선박이 수출된 것은 본부 승격 후 30년 만이다. 10일 광주본부세관과 TKS사에 따르면 TKS(Top of Korea Ship building)는 독일 선주사가 발주한 3만4000t급 벌크선(350억원)을 건조해 오는 14일 인도할 예정이다. 금광기업의 계열사로 영광 흥농에 있는 이 조선소는 지난 2007년 8월 설립됐다. 이 배는 회사 설립 이래 3년여 만의 첫 결실이다.

선박명은 '마콜로라도'(MarColorado·길이 185m, 폭 30m, 높이 14.7m)로, TKS사는 2008년 2월에 수주해 지난 2월 진수했다. TKS는 우여곡절 끝에 이 배를 만들었다. 회사가 선박을 수주한 뒤 급작스런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해 4월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절차)에 들어간 것. 모기업인 금광기업은 금융권 부채 200억원 등을 변제해 워크아웃 대상 조선업체 가운데 가장 빠른 45일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광주본부세관도 경영 정상화에

힘을 보냈다. 세관은 외국물품 도입·제조 과정에서 관세를 보류해주는 보세공장으로 이 회사를 지정, 자금부담을 완화해줬다. 진인근 본부세관장은 10일 광주본부세관 개청(1980년) 이래 30년 만에 관내에서 배를 수출하는 TKS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TKS사 관계자는 "선박 첫 수출을 계기로 회사가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 수 있도록 총력을 쏟고 있다"며 "이달 말께 2호기 진수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배는 오는 14일 영광 흥농 조선소를 출항, 독일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윤영기·박정욱 기자 penfoot@

韓銀, 기준금리 16개월째 동결

연 2.0%... "물가상승 억제, 8월께 인상" 시사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 시기는 이르면 8월로 예상된다. 김종수 한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에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의 기초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0%로 16개월째 동결하고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고 앞으로 경기 상승

세가 지속되면서 수요 압력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총재는 이와 관련, "통화정책은 결코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세로 소비가 늘어나고 하반기에 공공요금도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서민 주거 안정 지원 LH-HF 업무 협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9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서비스 지원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분양잔금이 남아 있는 LH 분양계약자는 보금자리론으로 받은 대출금(이율최저 3.56%)을 LH에 선납(선납이율 6%)할 경우 2% 이상의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금융기관 4월중 예금↑ 대출↓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4월중 예금은 증가한 반면 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4월중 광주·전남 금융기관 수신(예금액 기준)은 4605억원 증가해 전달(4318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예금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 여유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달 -234억원에서 531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비은행기관은 주식형 펀드 판매가 늘면서 4552억원 증가에서 714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여신(대출금 기준)은 -4745억원으로 전달(+1534억원)보다 크게 줄어

들었다. 예금은행(-1320억원 → -1841억원)은 일부 기업의 대출 상환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됐고, 비은행기관(+2854억 원 → -2904억 원)은 만기도래한 농가부채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감소로 전환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경남은행 1000억대 금융사고

대출담당 간부가 문서위조 부동산 PF 지급보증

경남은행 대출영업 담당 간부가 은행 물려 수천억원대 지급보증을 한 금융사고가 발생, 금융감독원이 감사에 나섰다. 1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할 때 은행 물려 문서를 위조해 지급

보증 등을 썼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감사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씨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은행 법인인감을 무단 도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4400억원의 자금을 지급보

증하거나 대출채권 매입약정, 특금금 전신탁 원리금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장 부장이 최초 투자했던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매우려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주까지 감사를 끝내고 장씨와 공모자는 물론 업무처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등 이유로 엄중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장 부장의 행위 자체가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해 이번 사고를 둘러싼 법정공방 등 다툼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젊은이새 사랑봉사단 보해, 22일까지 모집

대학생들로 구성된 보해 '젊은이새 사랑나눔미 봉사단'이 오는 22일까지 11기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광주 30명, 목포·순천·전주지역 각 10명, 서울 15명 등 모두 75명이다. 호남·서울지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젊은이새 사랑나눔미 홈페이지(www.yipselove.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젊은이새 사랑나눔미 봉사단은 보해양조가 지난 2006년 4월 설립한 봉사단체다. 문의 062-370-6270~4. /윤영기기자 penfoot@

아시아나, 국제 화물수송 14위

대한항공은 6년째 1위

대한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표한 '2009년 세계 항공수송 통계'에서 국제 항공화물은 세계 1위, 여객수송은 13위를 각각 차지했

다고 1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9년 정기편 국제여객을 520억8600만명 km(RPK, 각 항공편당 유상승객 수에 비행거리를 곱한 합계) 수송해 전 세계 항공사 순위에서 지난 2008년 보다 4계단 상승한

13위를 기록했다. 화물은 2009년 총 82억2500만 톤 km(FTK, 각 항공편당 수송 톤수에 비행거리를 곱한 합계)를 수송해 2004년 이후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여객 부문이 2008년 31위에서 지난해 28위로 3계단 상승했고, 화물 수송도 한 계단 오른 14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60 | 통영점 (063) 227-9970
울진점 (063) 951-2422

작은 관심과 주의로 행복한 봄의 정열성을 여세요!

Spend-Call 1588-7500

한국보청기(주) | 1588-7500